



Market behavior 엿보기

BEST EDG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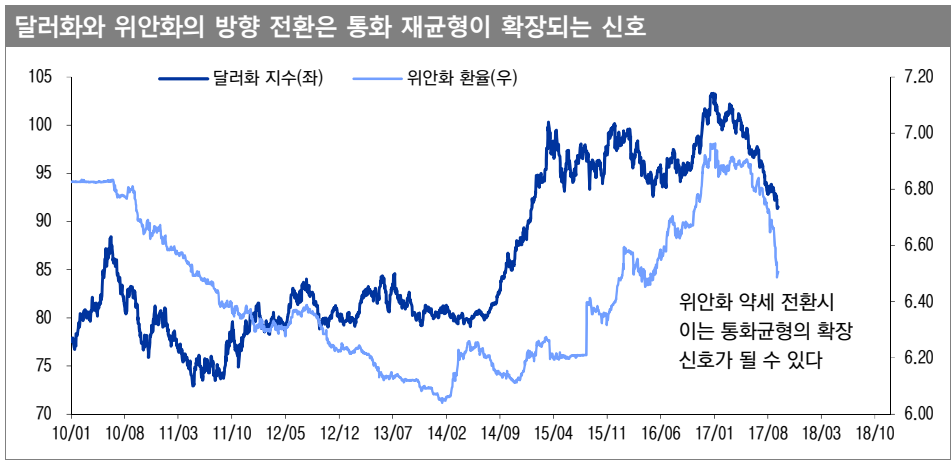
달러화 강세, 위안화 약세

Investment Edge

중국이 위안화 강세에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. 달러화 약세가 예상보다 많이 진행되면서 위안화 강세가 더 진행되었고, 따라서 통화 재균형이 필요해졌다. 그렇지만 이번에는 지난 15년 하반기, 16년 초 위안화 평가절하와 함께 발생한 시장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. 지난 두 차례 경험으로 위안화 약세가 파괴적인 환율전쟁이라기 보다 내부적으로 금융완화를 통한 부양정책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.

위안화 약세는 글로벌 통화 재균형을 통한 성장정책이 더욱 확장되는 신호라고 판단한다. 미국 및 ECB의 긴축은 빠르지 않을 것이다. 이는 신흥시장이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적으로 가져가면서 부양정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. 고정환율제에 가까운 중국은 이러한 통화완화 정책이 환율정책과 함께 한다. 다른 국가들이 금리인하를 하는 것과 같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.

달러화 강세가 미국만의 성장에 기댄 강세라면 미국 외 시장에는 부담스런 요인이다. 반면 최근 지나친 달러화 약세는 미국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영향을 주었다. 따라서 달러화 지수 상승은 미국 국채금리 반등과 더불어 글로벌 통화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다. 유럽 및 신흥시장이 함께 회복되는 구간에서 달러 강세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.


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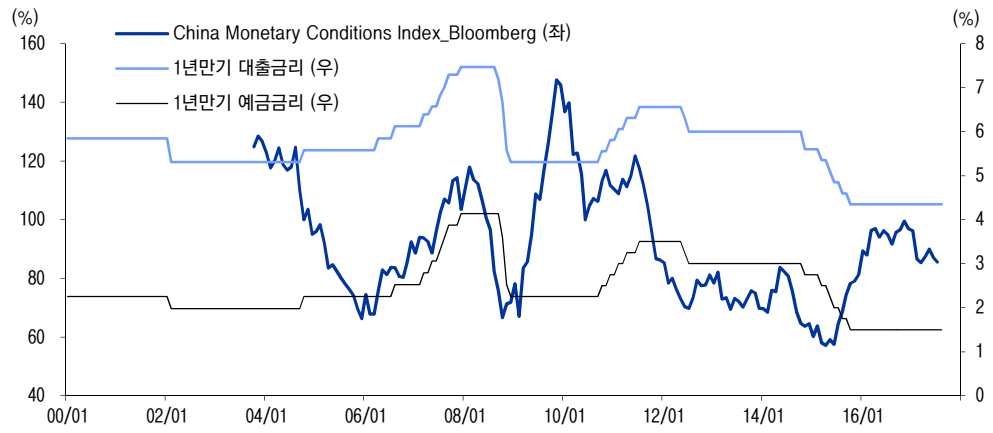
Chief Strategist

양해정

02. 3779-015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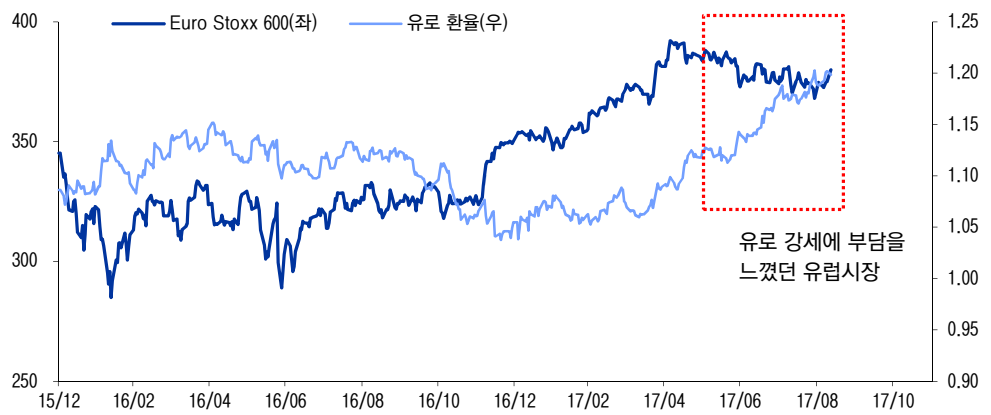
hijyang@ebestsec.co.kr

그림1 중국은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유지하고 있다



자료: Bloomberg, CEIC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유로화 가치 상승이 부담스러웠던 유럽시장


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양해정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